

한국 독어독문학 50년

- 회고와 전망

한우근(성신여대 명예교수)

1. 서론

1.1. 처음에

1945년 8·15해방을 맞이하여 '경성제국대학'의 시설과 도서를 인수한 미군정이 1945년 10월 '경성대학'을 열었다. 군정학무국이 문교부로 승격하면서 그곳에 재직했던 한국인 관리들은 '국립서울대학교안'을 구상하고 1946년 8월 27일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면서¹⁾ 세계적인 대학을 이룩할 큰 포부를 안고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으로 '국립서울대학교'를 재편성했다. 이 9개 단과대학 중 문리과(文理科)대학 문학부 안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독문과가 탄생했다. 독문과 설치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회고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전망에 기여할 힘을 잃고 있을 만큼 시대가 급진전하고 있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기억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1.2. 지금 독어독문과는?

21세기 문턱에 선 인류는 20세기 후반의 급속한 과학지식의 발전이 자연질서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간사회의 질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도덕, 국가, 도시, 농촌, 가족의 기반까지 흔들고 있는 세기말의 격동기를 겪으며, 이제 인간의 일의 질과 그 일에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개혁되고, 인간 그 자체도 개혁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 학문의 이상인 모든 종류의 사물에 관한 광범위한 지

1) 서울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편, 『서울대학교 50년사』(상) xxix쪽 이하.

식을 한 분야의 전문적 이해로 깊이 있게 결합시키는 곳이 되었기에 그 중 한편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 보다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운 현재에 있어서 제각기 현실성을 창조하는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이 양면성이 다 필요한 것이다. 대학은 종합적 지식이란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여건을 다 갖추어야 하고 대학생은 자기의 전공과목에 충실하여 깊은 지식을 얻으면서도 항상 타전공자들과의 대화를 계속하여 학제적 지식의 통합을 기해야 지성인으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쌓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의 독어독문학과는 좁은 의미로 독일언어권의 언어와 문학의 학문이라고 하겠지만, 그 텍스트들은 보다 넓은 의미로 통시성과 공시성을 연결 지어 자료와 문맥이란 구조 속에 상호유기적(interkontextuell)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어떤 한 상황과 경향 속에서 저술되어 그때 그때의 역사적 측면이 해석학적 관찰의 차원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신사 내지 사회사가 여기서 제외될 수 없고 더 나아가 독어독문학의 대상은 역사, 관습, 종교, 경제, 사회, 법률, 기술문명의 발전 등을 총망라한 것이므로 학제적 연구가 긴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²⁾ 이제는 이미 문학이 단독으로 존재하던 시대는 먼 역사가 되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1세기의 인류국가를 향한 시점에서 하나의 지구촌으로 되어가는 세계 문화권 내에 대중매체화 시대를 맞아 폭풍과 같은 정보 속예 몸을 의탁하고 있기에 문학의 개념과 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문학연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자세만이 21세기 정보화·대중매체화 시대에서의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언어학 분야에서 가장 어린 상호언어학(Interlinguistik) 학회(GIL)를 보더라도 1991년 베를린에서 설립되어 그 회원들은 대개 언어학자들이지만 이 학회는 언어학뿐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상호문화학, 법학, 정보과학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분야들에서 어떤 양상들이 국제적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 하에 그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어의 교수와 학습의 실제도 매우 복합적인 인식에 달하여 이제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Deutsch als Fremdsprache)라는 학문분야를 이루고

2) Stocker: S. 701ff.

있고, 그 분야의 연구발표회나 학술지에는 공동의 문제의식 하에 독일어 교육학자, 언어교육학자, 응용언어학자, 심리언어학자, 언어심리학자, 사회언어학자, 교육학자, 학습이론학자, 학습심리학자, 언어습득이론가, 인지이론가들은 물론 독일어 교수자, 커리큘럼 작성자, 교수매체제작자나 학습매체 제작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³⁾ 오랫동안 학습교재를 갖고 의사소통능력의 양성을 목표로 삼았던 교수법은 이제는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수업매체를 갖고 자동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게 되었으며, 이것은 오늘날의 일반교육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 분야를 연구한다는 것도 광범위한 지식울 요하고 그해야 전공의 깊은 곳까지 경험하게 되며 그것을 재평가해야 비로소 자기의 지식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학교이고, 그 속에서 학생들은 누구나 자기의 현실을 파악해서 미래를 향한 길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창조력의 계발일 것일 것이다.

2. 독일어독문학과 의 확장

2.1. 독일어 교육의 시작

독일어 교육이 우리 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1895년 대한제국의 종말이 임박했을 때 외국어 관제(官制)가 설치되고 외국어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해서 영·일·불·중·로에 이어 1898년 독일어학교가 설립된 때였으며, 1910년까지 일어 349명, 영어 79명의 졸업생을 냈고, 독일어 졸업생은 5명이었으나 한일합방의 비운과 더불어 폐쇄되었다.⁴⁾

구 한말시대 즉 1904년 한일협약 후부터 한일합방이후 1922년 일제에 의한 조선교육령이 선포되기까지의 기간동안 생겨난 공·사립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정규과목으로 하고 - 1938년 제2차대전이 임박하면서 한국어교육도 금지됐지만 - 외국어는 경시되었으나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책에 의하여 중등학교 교과과정 수의(隨意)과목 중 외국어로서

3) 한우근, 47쪽 이하.

4) 지명렬, 351쪽.

영·독·불을 택일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실행은 되지 못했다. 삼일운동 이후 영어는 필수과목으로 승격했으나 제2외국어는 유명무실했다. 독일어가 필수과목으로 교과과정에 들어간 것은 1926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와 1931년 세브란스의전에서였으며, 1940년 전문학교의 문과·이공과에서 그리고 극소수의 중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는 서구문명, 특히 독일의 문화·예술·과학기술 등 제반 문물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구제고등학교나 대학 예과는 외국어학교처럼 외국어수업을 중시하고 있었다.⁵⁾

2.2. 초창기 독문과

‘국립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문학부 독문과’의 설치시 초대 학과장직은 철학을 전공한 박종홍씨가 맡았다. 지금 세대에서는 전공한 교수도 없는데 어떻게 학과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었느냐고 의아해 하겠지만, 돌이켜 보면 어떤 준비도 없이 하루 아침에 한국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것도 한 순간, 이 작은 땅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남북으로 두 동강이가 났으므로 미군치하이든 어떻게 간에 국립서울대학교의 설치는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우선 그 외형은 세계적 대학의 면모를 갖추고 차차 내실을 갖추려 했던 것 같다. 따라서 남쪽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할 것이고 그 국가의 장래의 설계를 맡아야 할 국립서울대학교가 신설된 당시로서는 9개 단과대학 중 순수 학문분야를 담당할 문리과 대학 문학부에 우리 나라 정신문화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국문과와 나란히 세계문학의 연구분야로서 영문과, 독문과, 불문과 중문과가 설치된 것은 일반상식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처사였다. 각 학문 분야를 이끌어 나갈 담당교수가 없었던 사정은 어느 학과가 같은 마찬가지였다.

2대 학과장은 일본에서 독문학을 전공한 김삼규씨가 맡았으나 곧 신문사로 전직을 하고, 3대 학과장은 피테 전집을 2번 반 읽었다고 소문나 있었고 역시 일본에서 독문학을 전공한 이회영씨가 맡았다. 1946년 초창기에는 어느 학과나 다 같이 경성제대시의 소수의 재학생들과 타 전문대학

5) 김정진, 165쪽 이하.

교에서부터 편입한 학생들로 4·3·2·1학년 반이 구성되었다. 당시 1946년 4학년이었던 학생이 1947년 6월(당시에는 9월 1일이 학년 초였음)에 대한민국 국립서울대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독문과에는 한남구씨가 유일하였고 곧 본과의 교수가 되었으며 그 외모도 젊은 피테와 흡사하여 1949년 피테 탄생 200주년 행사 때는 매우 돋보이는 교수였다. 그는 독문과에 대한 애착과 포부가 지극히 컸으나 6·25 사변 시에 아깝게도 납북되었다. 1948년에는 서울대학교 예과의 마지막 출신들 17명(지명렬, 박찬기, 강희영 교수, 그리고 2학년에는 강두식 교수 등)이 들어와서 한 학과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49년 '국립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새 단장을 하고 6년제 중학교에서 입학생을 선발하게 되었다. 그 때 까지 중학교는 4년제로서 대학 학부에 가기 위해 2년제 예과 과정이 있었고, 이 예과 과정은 정신적 교양과정의 전당으로 문학·철학·외국어의 실력을 충분히 쌓게 되어 있었는데 해방후 중학교에서 예과를 흡수하여 중학교 6년제를 만들었다. 따라서 당시 중학교의 5·6학년 과정은 예과와 같은 기초학문과 외국어(제1 외국어는 영어, 제2 외국어는 독어와 불어)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6년제 중학교가 중·고등학교로 분리된 후에도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 과목이 설치되어 오늘에 이른다. 1949년 6년제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입학시험이라는 경쟁을 뚫고 필자를 포함한 정원 20명이 모두 선발된 독문과가 발족했다. 당시의 대학교육 환경은 초창기였지만 충분한 도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있었고⁶⁾ '일어'지만 작품이나 작품해설 및 문학기론에 관한 번역문헌들이 충분하여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학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었으나, 우리말 서적은 전혀 없었고, 독일에서의 독문학연구에 관한 정보는 얻기 힘든 상태였다. 여하튼 1949년 8월28일에 서울에서 가장 큰 극장이었던 명동 시공관에서 피테의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리기도 했다.

당시 문리과대학의 이학부(5개 학과)는 청량리 예과 건물을 썼고, 문학부(12개 학과)는 동승동 경성제대의 건물을 썼으며 여학생 수는 2% 정도였다. 문리대 문학부 학생들은 종로 5가에서 전차를 내리면 동승동 문학

6) 지명렬, 354 쪽.

부 건물에 이르기까지 희랍시대 사색파의 표정들을 짓고 누구나 홀로 걸어서 강의실에 들어갔다. 그 풍경은 삼삼오오 몰려서 지껄여대거나 건물 사이에서 공차기를 하는 요사이의 대학생들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독문과 학생들은 Fraktur로 인쇄된 『파우스트 Faust』를 읽는 데 몰두했다. 당시 구할 수 있었던 원서와 독일(獨日)사전은 다 Fraktur로 되어 있었다. 일제 때 학년 초가 4월이었던 것을 해방 후 9월로 실시해 왔으나 그것을 4월로 복구하는 것이 교육상 효율적이라 하여 1951년부터 4월로 실시할 예정으로 1950년에는 과도기적으로 학년초를 6월로 정했다. 그 후 박정권이 학년초를 3월로 바꾸어서 오늘날에 이른다. 문리대 안에서도 이학부는 항상 규칙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하여 문학부에서는 보다 개인연구에 치중하여 강의시간이 매우 여유 있게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1950년 6월 1일에 시작될 신학기의 첫 조회는 6월 26일(월요일)에야 비로소 열렸는데 그날은 이미 6·25가 발발한 다음 날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과 교수들은 느슨하게 운동장에 모여 서서 학장연설을 듣는 등 마는 등 하는 동안 저 멀리 38선에서 포성(砲聲)이 들려왔지만 별 동요가 없었다. 그 날 저녁에야 길에는 머리에 띠를 두른 청년들을 태운 추력이 심상치 않게 북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날 밤에 하나밖에 없는 한강다리가 폭파되었고, 다음날 27일 새벽에는 이미 북한의 ‘인민군’이 중앙청을 점거했다.

이 시각 이후 학생들의 반 이상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그 소식은 오늘날까지도 알지 못한 채이다. 1949년 입학생 20명중 1명(최국현 교수)이 제대로 4년 졸업을 하고 2년 늦게 필자가 홀로 졸업을 했으며 8년 늦게 2명(이명재, 박호삼 교수)이 졸업을 한 것이 전부였다. 물론 다른 학년이나 학과에서도 극소수가 몇 년씩 후에 졸업을 했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도 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졸업년도를 따지지 않고 입학년도를 비교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전쟁동안 부산에 있는 가건물(假建物)에서 강의가 열렸는데, 부산에서 입학하여 고스란히 졸업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도중에 탈락자가 거의 없이 대다수가 대학교수로 되었다(박환덕, 이동승, 고(故)이갑규 교수등). 1948년 광복록 교수(2회)가, 1951년 강두식 교수(5회)가, 그리고 1952년 지명렬 교수(6회)가 각각 홀로 졸업을 했다. 1953년 서울 수복과 더불어 대학교가 정상화되어, 서울에서 입학하여 4년

을 마친 세대(신태호·최순봉 교수 등)의 대다수가 대학에 재직하게 되어 잃어버린 세대에 속하는 선배들의 부러움을 샀다. 당시에는 피테, 아이헨도르프, 힐덜린, 클라이슬, 그릴파르처, 슈트롭, 슈니츨러, 헤세 등에 관한 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6·25로 그 이전의 학적부는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학생들은 각자의 기억에 따라 제각기 성적표를 만들어서 해당과 교수들의 확인을 받고 교무처에 제출했다. 그래도 매해 입학 경쟁은 치열했으며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독문과의 입학성적은 항상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서독은 전후 10년간의 노력으로 부흥의 길을 치달아 대외문화정책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들 학생들에게서 '홈볼트', '독일학술 교류처', '피테 학원', 10여년 후에는 '아데나우어재단'의 장학금을 제공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장학금으로 매해 서독유학생이 증가하여 이 때부터 대한민국 독어독문학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귀국 후 각 대학에서 강의하는 신진석학들이 되어 대학은 드디어 독어독문학의 내용이 채워져나가게 되었다. 지명렬 교수의 25년사에는 시, 연극, 소설, 독어학, 문학사, 일반독어를 담당한 교수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그 수가 70여명에 이른다.⁷⁾

[표 1]

설립년도	종설학과수	대학학과명: A:독어독문학과 B:독일어과 C:독어교육과/독어전공 D:독일학과
1946	1	서울인문대A
1954	1	한국외대B
1959	2	서울사대C; 성균관대A
1963	3	고려대(서울)A; 서강대A; 이대A
1965	2	경북사대C; 경희사대C(10년후 폐과)
1967	1	중대사대C(89년폐과)
1968	1	조선사대C

7) 지명렬: S. 357쪽.

설립년도	증설학과수	대학학과명: A:독어독문학과 B:독일어과 C:독어교육과/독어전공 D:독일학과
1971	1	부산사대C
1972	3	성신여대A; 연세대A; 전남사대C; 홍익대A
1974	2	숙명여대A
1975	1	계명대A
1976	2	전북사대C; 중남대A
1977	1	전남대A
1978	7	경남대A; 경북대A; 경상사대C; 단국대(천안)A; 부산대A; 상명대A; 전북대A
1979	2	동아대A; 서울여대A
1980	18	건국대(서울)A; 경기대A; 경성대A; 고려대(조치원)A; 대구대A; 대구호성카톨릭대A; 동국대A; 동덕여대A; 동의대A; 목원대A; 서원대A; 영남대A; 원광대A; 인천대A; 조선대B; 충북대A; 한국외대(용인)B; 한양대(안 산)A
1981	12	강원대A; 건국대(충주)A; 단국대(서울)A; 덕성여대A; 숭실대A; 인하대A; 전주대A; 제주대A; 중앙대(서울)A; 중앙대(안성)B; 청주대A; 한양대(서울)A
1982	4	강릉대A; 강원대A; 계명대D; 부산외대B
1983	5	경상대A; 성심외국어전문대B; 순천향대A; 한남대A; 한신 대A
1984	1	군산대A
1985	1	한국고원대C
1987	2	배재대A; 창원대A
1988	1	목포대A
1989	1	공주대A
1994	1	안동대A

2.3. 독어독문학과외의 증설

그러면서 각 대학에 독어독문학과가 증설(표 1)되었다. 서울대학교 보
다 8년 후인 1954년에 한국외국어대학이 설립되면서 독일어과가 생겼고,

1959년 서울 사대와 성균관대에, 1963년 고대, 이대, 서강대에 독문과가 신설됐으며, 이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각 대학에도 독문과가 생겨났다. 50년이 지난 지금은 100여개 대학교 중 60개 대학교 안에 1개 전문대를 포함하여 71개 학과가 있고 그 중 59개 독어독문학과, 4개 독어학과, 6개 독어교육과(독어교육과는 그간 없어진 곳이 있음), 그리고 2개 독일학과가 있으며, 매해 3000여명의 신입생이 입학을 하고 - 98년도에는 16개 대학교에서 학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외의 59개 학과가 과단위로 뽑는 신입생 수는 주간 2104명과 야간 121명이다 - 400여명의 교수진(표 2)을 비롯하여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원이 700여명에 달하게 되었다. 즉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원이 25년전에 비해 그 수가 10배에 달하게 된 것이다.

96년도 교육부에 보고된 각대학교 교수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 교수수는 350명에 이르며 성별, 전공별, 학위별, 연령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성 별	남		여	
	283		67	
전공별	문학	언어학		기타
	253	92		5
학위별	석사	박사(국내)	박사(독일)	박사(독일의 외국)
	38	182	122	8
연령별	60대	50대	40대	30대
	31	129	156	34

2001년 8월까지 정년 퇴직 예정자의 수를 보면 총 31명이며 매 학기에 정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정년년도	인원수	정년년도	인원수
1997. 8	1	2000. 2	4
1998. 8	4	2000. 8	5
1999. 2	2	2001. 2	8
1999. 8	2	2001. 8	5

3. 독어독문학연구

3.1. 독문학

지난 50년간 문학 및 언어학 이론의 소개, 우수한 독문학자의 배출 - 그 간 독일에서 10년씩 학문에 몰두하여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학자들의 학문적 업적과 실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 한독번역연구소 및 각 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소들(표 4), 독일을 비롯한 외국들과의 학술교류 증대, 한국독어독문학회 외에 작가별·연구분야별 9개 학회(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한국독일어교육학회, 한국괴테학회, 한국독일어문학회, 한국독일언어학회, 한국뵘히너학회, 한국브레히트학회, 한국카프카학회, 한국헤세학회)의 설립 등 각 개인 및 그룹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표 4]

설치된 곳	연구소명
재단법인	한독문학번역연구소
경상대학교	한독문화교류연구소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고려대학교	독일문화연구소
군산대학교	한독언어문화연구소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성심외국어전문대학	외국어교육연구소
조선대학교	외국문화연구소

1985년 5월 한국독어독문학회는 독어독문학의 발전을 위해 자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처음으로 “한국독어독문학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문학, 어학 및 교육분과별로 발표를 하고⁸⁾, 문학강의의 목표를 인성교육, 주체성과 사회의식의 형성, 실천력과 행위력의 신장 등에 두고,

8) 이원양: 2쪽.

문학연구가 상호행위의 실천적 장이 되어야겠고, 강의는 상황·참여자 중심적이 되어야겠다는 견해⁹⁾들을 밝힌 바 있으나 그 후 이러한 주장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감이 있다.

독문학연구의 역사를 번역을 통해 가늠해 보면 초기에는 초역이거나 내용소개에 불과했다. 그래도 초기작품을 들어보면 1907년 쉴러 F. Schiller의 『빌헬름 텔 Wilhelm Tell』의 번역을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정철관이 소설체로 의역한 것을 박은식(朴殷植)이 그 중국본을 대본으로 하여 번역한 것으로 ‘정치소설’이라는 표제를 붙였기 때문에 일제는 판매를 금지했다. 1908년 괴테의 작품을 『청년』지에 번역 소개했다. 1915년을 전후하여 일본유학생들에 의해 발간된 『태서문예신보』¹⁰⁾가 서구문예사조를 소개한 최초의 문예지 역할을 했고, 1926년에는 외국문학의 번역 및 소개를 목적으로 한 ‘해외문학연구회’가 발족되어 신문학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창간호의 셋째 항목에 김진섭의 ‘하인리히·만 문전일보(門前一步)’와 ‘표현주의문학론’이란 평론이 실렸다. 이러한 해외문학운동은 점차 순수문학운동에 접근하여 1931년에는 ‘극예술연구회’가 조직되고 37년까지 20회 공연을 거듭했다. 1932년 8월28일에는 서울에서 괴테 사후 100년 제전이 거행되었는데¹¹⁾ 이것은 앞에서 말한 1949년 괴테 탄생 200주년 행사보다 17년 전의 일이었다.

한국의 독어독문학 50년 이전의 시대를 언급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우리나라의 서구문학수용의 초창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20여년간의 공백기에 번역된 극소수의 작품들은 일본번역에서 우리말로 옮겨진 중역들이고, 60년대에 와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기타대학에서 배출된 사람들의 번역작품들이 출판되었다. 70년대 말에 이르러 비로소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번역을 했는데, 이 경우가 우리 나라에 있어서 독문학의 직접적 수용의 첫 시기라고 칭할 수 있다. 90년대 현재에 이르러 드디어 쥐스킨트 Patrick Süßkind의 소설 『좀머 씨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서적시장에서 베스트셀러 종합 1위의 기록을 세우기도 한다.

1994년 차봉희, 김기선, 임승기 세 교수는 “최근 독일문학의 한국 수용

9) 차봉희: 대학교육(大學教育), 105쪽.

10) 김정진: 213쪽.

11) 김정진: 214쪽.

을 위한 연구”를 위해 그 실용화 작업으로 “독일 문학텍스트 선정작업”을 계획하여 각기 소설, 희곡, 시 분야를 맡아서 1년간의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 나라의 독문학 번역연구의 역사를 돌아다 볼 수 있기에 그 중에서 차봉희 교수의 소설분야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번역을 수용행위로 보고 그 속에 소개, 전달행위와 가공작업등을 다 포함시켜서 독일문학연구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그 업적에 비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²⁾ 그 중 하나의 예를 들면, 1970·80년대 독일문학작품 중 독일 팀에서 1994/5년에 선정한 목록에 나와있는 200명 중 26%에 해당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지만, 번역이 된 작품들이 그 작가들의 대표작이나 문제작에서 매우 벗어난 현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한국에서 지금까지 번역 출판된 것들은 특정작가나 특정작품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역이 많아서 이를테면 지금까지 400여명의 독일작가가 번역이 되었는데도 괴테, 릴케, 하이네, 토마스 만, 뵐, 린저의 여덟 작가의 번역이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낭만주의 및 사실주의의 주요 작가의 대표작품들은 전혀 손도 안댄 실정인가 하면, 독문학사에서는 언급이 거의 없는 작가와 그 작품들이 다수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다.¹³⁾ 그리고 문학강의와 문학연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대학교의 석·박사 논문을 조사한 결과 7·80년대 작가들에 관한 논문은 총편수의 11.6%이고, 그 중 독일측 목록에 있는 독일작가들의 연구논문은 2%에 불과하므로 이 시대의 작품들의 수용이 활발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독일상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왜곡된 상이 전달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¹⁴⁾

물론 독일에서 본 시각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¹⁵⁾ 하는 문제도 제기되지만 이 분야가 이제는 우리 나라 자체 문화적 그리고 상호 문화적 차원에서 올바른 독일문학의 수용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의 편향된 수용이 극복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여겨진다.

12) 차봉희: 번역연구 81쪽 이하.

13) 차봉희: 번역연구, 87쪽 이하.

14) 차봉희: 번역연구, 84쪽 이하.

15) 임승기: 437쪽.

3.2. 독어학

한국에서의 독어학연구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어, 80년대 중반까지는 중세학 Mediävistik 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서, 통시적 연구경향과 방법론으로 역사언어학 분야의 연구논문이 주로 발표되었다. 여기에 70년대 말부터 소개되기 시작한 촘스키의 문법이론의 연구가 독어학계에 서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수용·적용·연구되었으며, 이는 80년대 말부터 독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촘스키주의자 Chomskianer들을 중심으로 문장론 분야의 연구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고, 의미론, 형태론, 언어 습득분야의 연구방향으로 확대되어 질적, 양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 독어학계에 텍스트언어학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7·80년대 한국에서의 내용중심문법이론 연구의 뒤를 이은 후학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그 외에 최근 1990년 이후의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독어교육을 염두에 둔 의존문법학 분야의 연구논문들과, 독일 통일 이후의 독어변화, 독일언어정책 등에 관한 논문도 발표되었으며, 또한 컴퓨터언어학 Komputeringuistik 분야의 연구도 시도되고 있고, 통합문법 쪽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독어학계의 연구동향은 아직도 체계 언어학적 언어구조연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외의 응용 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화용론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한국에서의 독어학 연구는 독문학 연구도 마찬가지로지만 거의 '독일내의 독어독문학 및 독일언어학(Inlandgermanistik/-linguistik)'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이제 앞으로는 한국 독어학 연구도 한국의 입장에서 그 연구주제, 방법, 목표설정 등을 재고해 보고 우리의 자세를 재정비 할 때가 왔다고 본다.

3.3.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외국의 독어독문학 및 언어학(Auslandgermanistik/-linguistik)'의 한 분야인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에 있어서는 그 간 독일에서 학위를 하고 귀국한 학자들이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초창기에 있으며 그 연구를 위해 1995년 '외국어로서의 독일어(DaF)'학회가 발족되어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의 개념을 재설정하고 문학적, 언어학적, 외국어교육학적 그리고 지역학적 접근방법의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⁶⁾

한 예로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독일어 교재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분야의 학자들의 공동작업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독일어 대학교재는 40년대의 문법·번역 방법에 머물고 있고 교수법도 그 방법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으로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1973년 필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독문학회회를 위해 당시로서는 최첨단 이론에 의한 『대학독일어』(삼영사)를 집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에 일조한 바 있지만 그 후 25년이 지났어도 그 교재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 채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3.4. 고등학교의 독일어 교육

앞에서 언급한 바 고등학교에서 예과를 흡수하여 제2외국어를 선택필수 과목으로 설치해 온 고등학교에서의 독일어교육은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변경 때문에 여러 번 수난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견디어 1997년 현재 전국 1,856개 고교 중 제2외국어를 편성·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94.40%이고, 전국 고교의 제2외국어 편성학급수 중 독일어는 29.90%(일어 46.45%, 프랑스어 18.05%, 중국어 14.7%, 기타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차지하고 있고, 독일어 교사는 '96년 현재 1289명(일어 1561명, 불어 812명, 중국어 196명, 스페인어 50명)에 달한다. 독일어 교사들은 그간 교육부에서 40여년에 걸쳐 매 방학마다 현지훈련을 겸해 재교육을 실시한 결과 고교에서 이문화(異文化)에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독어수업을 위해 가장 선진적인 교수법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동양에서는 다른 국가에 없는 강점으로 현재 유능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 간의 투자를 무시하고 국제화·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도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교육이 실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즉 제2외국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과목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1996년까지는 일부대학에서 본고사를 실시할 경우

16) 하수권.

제2외국어를 채택하기도 했으나 1997년 대학 신입생전형부터 대학에서는 교과에 관련된 본고사는 시행치 않고 논술고사만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의욕의 상실은 물론 담당교사들의 사기도 저하일로(低下一路)에 있다. 하긴 일명 세계화정책의 일환으로 개혁을 했다는 학부제도 우리 사회의 앞날을 창조하는데 기본역할을 해야하는 인문계 교육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착오는 바로 우리 나라의 문화적 토대가 의문시되는 현상이고, 독문학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이 된다.

4. 전망

경제성장이 지상의 법칙이 된 지금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약탈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던 정신의 기억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 한국의 독어독문학이 할 일은 많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만을 간략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독어독문학이 해야할 과제를 가늠해 보기로 한다.

- 한국에 있어서의 독문학 및 독어학의 연구·입장을 새로 확립할 것
- 우리 나라에서의 미연구분야를 체계적으로 보충할 것
- 국어국문학과와의 비교 및 상호교류연구를 할 것
- 기타 인접학문과의 학제적 공동연구(예: 서구문학/문화의 수용 및 동양문화와의 비교 등)를 할 것
- 일반 수용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번역작업의 계획 및 실천: 번역작업은 독일문학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 독자들을 위하여 독일의 전반적인 문화전달이 필요하므로 독일학은 물론 기타 전문분야의 경우도 체계적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마련에 힘써 학회차원이나 연구소차원에서 독일에서 귀국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이상과 작업이 이루어져야 우리 나라의 독어독문학계에 올바른 기반이 생겨서 후학들이 그 다음 작업을 해 나갈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 독일문화수용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은 아직도 선진적 산업지대이며, 더욱이 진보적 경제정치를 펴고

있는 독일은 유럽공동체 안에서도 사회 문화적 면으로 음악, 미술, 문학은 물론 고도로 발달한 법률,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등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작년 제2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위한 제안으로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는 우리 나라의 외교나 통상상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나라별 지역전문가가 없는 것을 탄한 적이 있었다. 지역전문가들의 연구들을 통해서만 다른 국가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에 바탕을 둔 탄탄한 외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의 인력개발원에서도 수출을 위해서는 영어만으로 해결을 했지만, 해외 판매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 나라 직원들과는 물론 그 나라에서의 회사경영을 위해 현지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나아가 선진기술, 선진회사경영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는 더욱더 해당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지역전문가나 전문어(Fachsprache)에 관한 연구도 독어독문학에서 말아야 할 몫이다. 지금까지처럼 미국의 나치 영화를 통한 독일문화의 전달이 아니라 현재의 독일이란 나라가 충분히 소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반인들도 독일이란 나라의 제반 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부제에서도 자율적으로 독문과를 원하는 지원자가 많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실용성의 강조와 더불어 입사후의 훈련과정과 같은 대학교육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노예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얇은 지식에 자신을 묶어 자신의 마음과 입을 마비시키지 말고, 과잉정보의 물결 속에서도 자신이 가는 길의 뜻을 물어서 바른 길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해야 된다. 바야흐로 경제로 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인문과학의 연구가 모든 분야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며 그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독어독문학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 Karl Stocker: "Wege zu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der Moderne", 실린 곳: 정규화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범우사 1996, 696-723쪽.
 김기선: "최근 독일문학의 한국수용을 위한 연구 - 그 실용화를 위한 방향설정의 구체안으로서 독일 희곡 텍스트 선정작업", 실린 곳: 번역연

- 구, 제4집 1996, 재단법인 한독문학번역연구소, 116-158쪽.
- 김정진: “한국 독일어교육의 비평사적 고찰”, 실린 곳: 朴仁守博士 華甲記念論叢 1974, 성대출판사, 161-218쪽.
- 임승기: “70-80년대 도이치 시문학 수용을 위한 작품 선정작업”, 실린 곳: 독일문학, 한국독어독문학회, 60집, 37권 2호 1996, 327-353쪽.
- 지명렬: “韓國獨逸語文學界 25年史”, 실린 곳: 李檜永教授 回甲紀念 論文集 1972, 성대출판사, 349-359쪽.
- 차봉희: “70·80년대 독일문학의 수용을 위한 ‘소설’텍스트 선정작업”, 실린 곳: 번역연구 제4집 1996, 재단법인 한독문학번역연구소, 62-115쪽.
- 차봉희: “獨語獨文學科의 課題와 改善案”, 실린 곳: 大學教育 (통권 제13호) 1985.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04-112쪽.
- 차봉희: “한국의 독문학 수용사적 개관에서 드러나는 수용양상과 그 전망 - 독일 ‘번역소설’을 중심으로 한 독문학의 한국 수용사적 개관”, 실린 곳: 외국문학 1996년 가을·제48호, 열음사, 31-58쪽.
- 하수권: “한국독일어교육학회의 발전 방향 모색” ‘97 한국독일어교육학회 춘계 학술발표
- 한우근: “독일어 수업매체에 관한 연구”, 실린 곳: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 제15집, 1995, 47-69쪽.

발제에 대한 토론

안삼환: 독문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현재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독일어나 독문학을 가르치면서 우리 자신도 개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독일어라는 언어와 독일어 문화권을 매력적인 대상으로 만들어야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중요한데, 어느 것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한선생님께서 지혜를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저는 그동안 독문학자들이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독일상을 전달하는 일에 너무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를 제대로 알렸더라면, 독일어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알고자하는 의욕이 생겼을 텐데요. 나치가 독일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독일학 쪽에서 독일어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대학의 언어 교육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독일의 언어 교수법이 우리 나라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독일어 수업 시간에 적극 활용하여 수업의 성과를 높여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독일에서 지금 사용되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서 수용하여야 겠지요. 제한된 시간 내에 학생들에게 많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삼환: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우선 독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흔히들 나치스, 나치스 철모, 히틀러와 같이 부정적인 면을 먼저 연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독일어를 가르칠 때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DaF)' 교수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 독일인들이 연구해 놓은 이론을 우리가 응용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DaF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 보지는 않았지만 교양 독일어 강의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더니, 투자를 한다

고 성과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겠더군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면면히 이어나가야 하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조급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의 요지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우근: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독문학계가 너무나 개혁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안삼환: 한선생님께서서는 1949년에 입학하셔서 그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시고 지금까지 고군분투해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손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막상 무엇을 시작하려해도 재정적 지원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지금 제 2 외국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투자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투자를 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지요.

한우근: 여러 기업에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가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김길용: 한선생님께서 교육(독어독문학)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우근: 한마디로 학생이 스스로 연구하도록 대학 교육이 이루어져야겠지요. 지금까지 교수님들이 강의도 하시고 연구 활동도 해오셨지만,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바람직한 대학 교육, 올바른 대학 생활이 될 것입니다.

신태호: 문리대 시절에는 독일어 강의와 독문과 전공 강의에 타과생들이 많이 수강하였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주변 여건도 지금보다 더 나빴고 학생들의 장래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불투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대 학생들과 지금 학생들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한우근: 그 당시의 학생들은 학문을 하겠다는 열정이 있었지요. 지금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고 또 가르치려 시도하고 있는 통합적인 학문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문학을 전공하든 불문학을 공부하든 독문학 강의도 한번 들어보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대에는 제 생각으로는 군정(軍政)의 영향이 크다고 봄

니다.

황윤석: 지금 중요한 이유를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독문학을 하든 철학을 하든 '인문학은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인문학이라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문리대 시절에는 강좌가 적게 개설되었기 때문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다른 과의 강의를 수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로는 서울대학교가 1975년에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문리대가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으로 분리되어 인적 교류가 차단되고 말았던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교류가 선행되어야 학문적인 교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김길웅: 한선생님께서 독일어 교수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독문과 강의 전반에 걸쳐 독일학 개념을 도입하여 강의 방식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역사를 독어독문학과에서 가르칠 때는 역사학과에서 가르치는 식으로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크의 비극을 통해서 30년 전쟁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이야기 하는 식으로 수업 방식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우근: 당연하죠.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독일학이 이런 방향으로 활용되어야겠지요. 지금까지는 교수들의 일방적인 설명이 주가 되었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태호: 독문과에서 독일의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 저는 그것이 학부제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학과에서 몇 년 전까지는 독일 역사를 독일어 원서로 강의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독일어 원서를 제대로 읽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인문대학생이면 외국어는 두세 개 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각 과의 외국어 강좌에 학생들이 꼭 찾는데, 여기 관악캠퍼스로 옮겨온 뒤로는 그런 경향들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한우근: 통합적인 학문을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없어졌으니까요.

신태호: 과거 경성제대 시절 가장 중요한 학과는 심리학과였습니다.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말이죠. 나중에 조사해 보니 우리가 해방 전에 가지고 있던 문헌서들이 대부분 심리학과의 장서였습니다.

한우근: 그러니까 일본은 학문의 토대를 이미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학문적인 면에서 신생 국가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점을 살려야지요.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전영예: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는 원인들은 지금까지의 말씀들에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러한 현상은 결국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저하되었다기 보다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과의 복잡한 반응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 상황을 인정하고 학생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학생들의 입장을 수용해야 할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시 독일어' 강좌를 개설하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들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용화 작업을 해야 하긴 하지만 그 한계를 설정하는 작업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우근: 가령 '고시 독일어'도 하나의 Fachsprache로 본다면, Fachsprache를 구성하는 작업도 독문학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신태호: 독문학과에서 법학독일어나 고시독일어 강좌를 개설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학교 내부의 행정적인 여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대에서 '법학 독일어'라는 강좌를 개설할 때도 그 이면에는 법대 내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문과 혼자서만 독단적으로 이러한 강좌개설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므로, 다른 외국어문학과들과도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삼환: 논의를 너무 일반화시키지 말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DaF를 전공하신 한선생님의 입장에서 교양 독일어를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할지, 전통적인 강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우근: 교양 독일어를 가르치려면 세부 전공을 불문하고 모두 DaFler가 되셔야 합니다. 법대나 경제학과에서 교양 독일어를 가르치려면 그 부분에 관한 공부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법학 독일어나 경제 독일어라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도 독문과와 DaF 쪽에서 해야합니다. 가르치는 일 자체가 전문화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안삼환: 선생님 말씀은 저도 많이 생각했던 문제인데, 가령 토마스 만의 “마의 산Zauberberg”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 교양 독일어 수업에 투입될 경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DaF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교양 독일어를 가르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한우근: “마의 산”을 공부한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분이 DaF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문화원에서도 매년 독일어 교수법을 연구하는 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하시는데 전부를 참석하셔서 어떻게 하면 독일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삼환: 저희들은 그 분야에 문외한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우근: 일전에 ‘자동 학습법 Autopädagogik’을 전공한 분이 오셨는데 스칸디나비아의 여행 안내서를 가지고 와서 열 개의 밑줄을 쳐 놓고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맞추어 보라고 하더군요. 그 나라 언어에 관한 지식이 없는 참가자들이 결국 모두 다 맞추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식의 학습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재나 많은 연습문제들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은 DaF 쪽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많은 교재를 만들어서, “마의 산”을 공부한 사람이라도 이 교재만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문제는 교재지요. 교재만 있다면 세부 전공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구명철: “양철북”이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등 영화화된 문학 작품을 강의에서 다룬다면 작품을 영화와 연결시킬 수도 있고 나아가 독일 영화 자체도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영화학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대개 헐리우드 영화

만 다루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게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넓은 의미에서 문학과 관련된 독일 영화, 나아가서 독일 영화 자체를 독문과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한우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필름은 독일문화원이나 독일 대사관에서 손쉽게 빌릴 수 있으니 말이죠. 좋은 독일 영화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서 일정 기간 어느 극장에서 무료로 상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에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영화 상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지원받을 수도 있겠지요. 물론 독일문화원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연극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연극 세미나를 할 때도 그 연극에 관심이 있는 연출가를 초청해서 한다면 보다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이민용, 이은주, 황승환]